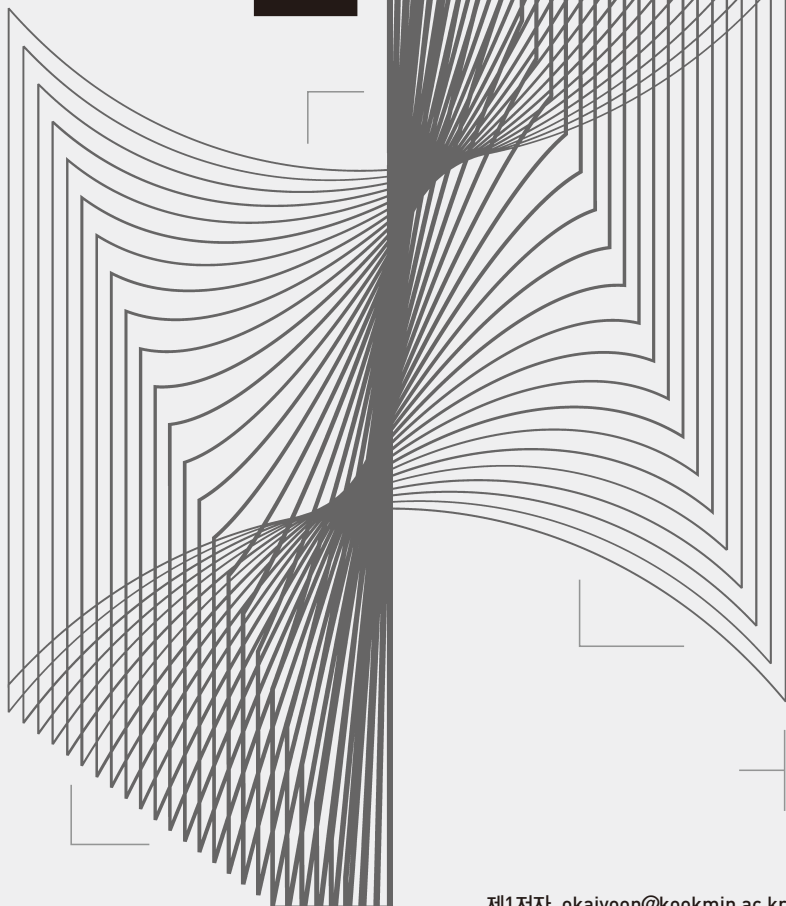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8호

(2026/봄)



제1저자, okaiyoon@kookmin.ac.kr

좋은 삶 담론의 현대적 재정렬

행복 · 의미 · 덕 개념의 이론적 비교를 통하여

윤옥한(국민대학교 · 교육학과 · 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4.58.39>

I. 서론

■ ‘좋은 삶’(the good life)은 규범 철학이 묻는 ‘무엇이 좋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과, 심리학·사회과학이 다루는 ‘무엇이 삶의 만족과 안녕을 높이는가?’라는 경험적 질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었다. 그러나 두 질문은 동일한 층위에 있지 않다. 전자는 삶의 정당화 기준(규범)을, 후자는 삶의 상태를 기술·설명하는 지표(측정)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럼에도 현대의 ‘좋은 삶’ 담론은 실천적 필요(정책, 교육, 상담, 조직문화 등) 속에서 이 둘을 한데 묶어 말해야 하는 압력에 놓여 왔고, 그 결과 ‘좋은 삶’은 대체로 세 갈래 언어로 나누어 발전해 왔다. 첫째, 주관적 안녕감으로서의 행복(쾌, 정서, 만족), 둘째, 삶의 목적과 서사로서의 의미(의미의 존재, 탐색), 셋째, 성품과 실천으로서의 덕(행위의 습관, 규범화)이다.¹

이 세 갈래는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 설정을 제공했고, 후속 연구를 촉진했다. 행복 연구는 삶의 질을 경험 지표로 포착하며(예: 삶의 만족, 정서), 의미 연구는 삶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고(의미의 발견·추구), 덕 윤리는 좋은 삶을 가능케 하는 행위·성품의 규범을 정

1 Baumeister, R. F., Vohs, K. D., Aaker, J. L., & Garbinsky, E. N.,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a happy life and a meaningful lif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2013), pp.505~516.

교화한다.²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삶의 가치 전체로 환원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심리적 안녕(자기수용, 자율성, 관계 등)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축적됐다.³ 또한 행복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실증 연구는 ‘좋은 삶’의 판단 준거가 단일 지표로 합쳐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⁴ 의미 연구는 ‘의미가 있다’라는 상태만큼이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안녕감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탐색하며, 좋은 삶을 현재의 느낌만이 아니라 지향과 해석의 구조로 확장해 왔다.⁵ 덕 윤리 전통 역시 단순한 규범 암기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 성품을 형성하고 그 성품이 다시 삶의 선택을 이끄는 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좋은 삶’의 규범화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⁶

그러나 분기의 이면에는 세 가지 편향 위험이 상존한다. 첫째, 행복 중심 접근은 ‘좋은 삶’의 기준을 경험 지표로 환원하여, 규범적 정당화, 즉, ‘왜 그것이 좋은가?’를 “만족을 높인다”라는 상관의 언어로 대체할 유혹이 있다. 특히 만족 척도와 같은 측정 도구는 비교와 개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일 점수가 동일 의미를 갖는지와 같은 측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좋은 삶’ 담론 자체가 기술적 수치에 의해 과잉 규정될 수 있다.⁷ 둘째, 의미 중심 접근은 의미를 개인의 서사로 사유화하여, 공동선·정의·책임 같은 공적 규범을 개인의 내면

- 2 김대근, 「덕 윤리의 역사적 전개와 규범화: 좋은 삶의 규범화 가능성을 위한 시론」, 『법철학 연구』, 28(2025), 266~298쪽.
- 3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989), pp.1069~1081.
- 4 Baumeister et al., *op.cit.*, pp.505~516.
- 5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006), pp.80~93.
- 6 김대근, 앞의 글, 266~298쪽.
- 7 구제선,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연령 및 성별 측정 동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2019), 305~323쪽.

서사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셋째, 덕 중심 접근은 덕의 권위를 전통에 고정함으로써, ‘다원사회에서 덕의 정당화 근거로 왜 이 덕인가?’, ‘어떤 맥락에서 유효한가?’를 충분히 갱신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⁸

본 연구는 ‘좋은 삶’ 담론이 규범 철학의 정당화 질문과 심리·사회과학의 경험적 측정 질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두 질문의 층위 차이가 실천적 압력 속에서 충분히 분리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의 경험 지표, 의미를 삶의 목적·서사를 조직하는 해석 틀, 덕을 성품과 습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안정화하는 실천 규범으로 구분해 비교하고, 세 개념을 동일 수준의 경쟁 기준이 아니라 ‘행복(경험)-의미(해석)-덕(실천)’의 기능 문화적 상보성으로 재정렬하는 이론 틀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행복, 의미, 덕에 분석 범위를 한정된 것은 심리적 풍요로움이나 성취·충만감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는 좋은 삶 개념이 더욱 다원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된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새로운 총체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비교적 축적이 두터운 세 담론의 관계를 ‘경험-해석-실천’의 틀에서 재정렬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심리적 풍요로움, 성취 등은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범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후속 연구에서 기존 삼분 틀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확장 요소로 남겨 둔다.

본 연구는 행복, 의미, 덕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규범 근거, 측정 가능성, 실천 전략의 차원에서 비교·종합하는 이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Chat GPT 5.4)는 문장 교정

8 Baumeister et al., *op.cit.*, pp.505~516.

및 초안 정리의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2025. 12. 05).

II. 행복 담론

1. 주관적 안녕감 중심의 행복 개념

현대 행복 연구의 주류는 주관적 안녕감을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결합으로 설명해 왔다.⁹ 이 틀의 강점은 ‘행복’을 단순한 기분 좋은 상태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동시에 어떤 정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지를 함께 묻는다는 데 있다.¹⁰ 특히 삶의 만족은 대표적으로 SWLS¹¹와 같은 척도를 통해 측정되는데, 이러한 도구가 좋은 삶 논의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나이·성별 등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동일 점수가 동일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 순간 ‘좋은 삶’ 담론은 경험 자료에 기대면서도 비교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¹²

국내 연구에서도 행복을 다요인 구조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축적됐다. 예컨대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척도 화한 연구들은 행복이 단순 쾌락이나 기분이 아니라 관계,

9 Ryan, R. M., &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2001), pp.141~166.

10 천명주 · 심경옥, 「작은 행복 추구 경향성과 사회적 연대 의식 간의 관계: 주관적 행복과 정치참여 의도의 매개 효과」, 『한국과 세계』, 7(2025), 945~968쪽.

11 SWLS는 보통 심리학 · 교육학 연구에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삶의 만족도 척도라고 번역한다.

12 구제선,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연령 및 성별 측정 동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2019), 305~323쪽.

성취, 가치, 심리적 안정 등 복합적 차원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접근은 행복을 삶의 총체적 질에 가까운 개념으로 확장하며, 프로그램 개발에서 목표를 정교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다만 행복을 너무 넓게 확장할수록,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인지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단일하지 않다.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 자기결정성 이론, 욕망-비교-적응 관점은 각각 행복을 경험 상태, 기능적 안녕, 동기의 질, 비교와 적응의 과정으로 다르게 설명한다. 이는 행복이 단순한 쾌락의 총합이 아니라 복합적 개념임을 보여준다.

2. 욕망-비교-적응: 행복의 확장과 개념 불안정

행복을 욕망의 충족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행복이 결핍의 해소와 목표 진전의 평가에 결합하여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 논의에서도 욕망의 구조가 행복 경험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비교와 기대의 변화로 행복이 쉽게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¹⁴ 이때 행복은 ‘상태’라기보다 평가 과정에 가깝다. 같은 소득·같은 성취라도 비교 준거와 적응 수준이 달라지면, 행복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행복은 욕망-비교-적응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며 그만큼 개념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또한 목표·가치의 성격에 따라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는 논의는, 행복이 단순히 ‘얼마나 즐거운가?’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무엇

13 김혜원·한영석·차경호·김명수·임지영,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 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003), 415~442쪽.

14 권석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36(2010), 121~152쪽.

을 추구하는가?’와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와 목표 추구의 ‘동기’가 참살이(well-being)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며, 동일한 성취라도 동기가 자율적인지 통제적인지에 따라 경험되는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¹⁵ 이러한 관점은 행복을 욕망 충족의 단선적 산물로 보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을 계속 덧붙이게 만들어 개념의 경계를 더욱 넓힌다. 행복 개념을 확장하여 설명력을 높일수록, 역설적으로 ‘좋은 삶’ 논의에서 규범적 핵심,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가? 에 대한 기준이 주변화될 위험이 증대한다.

3. 행복 담론의 장점과 한계

행복 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비교 가능한 경험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삶의 만족, 정서 균형, 심리적 기능 수준 등을 측정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룰 수 있다.¹⁶ 둘째, 행복을 지표화하면 상담·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강점 기반 프로그램이 주관적 안녕감과 탄력성,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행복을 실천적 개입의 평가 준거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다.¹⁷ 또한 행복을 단순 쾌락이 아니라 기능적·발달적 차원(예: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연속선)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행복 담론이 “가벼운 기분”에 머물지 않도록 돕는다.¹⁸

15 Deci, E. L., & Ryan, R. M.,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2000), pp.227~268.

16 구재선, 앞의 글, 305~323쪽.

17 이문희·이영순, 「성격 강점에 기반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013), 813~831쪽.

18 Keyes, C. L. M.,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2002), pp.1007~1022.

그러나 행복이 지표가 되는 순간, ‘좋은 삶’이 지표 최적화로 축소될 수 있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행복 점수를 높이는 전략이 곧 ‘ 좋음’의 전략으로 오해되면, 의미와 덕은 행복을 위한 ‘도구 변수’로 전략하기 쉽다. 이 지점에서 ‘불행하지만 옳은 삶’, 혹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정당한 선택’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덕 윤리 전통이 강조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정당화이다.¹⁹ 즉 좋은 삶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규범화의 문제다.²⁰

요컨대 행복 담론은 측정과 개입이라는 강력한 실천적 도구를 제공하지만, 그 도구가 곧바로 ‘ 좋음’의 기준을 대체하는 순간 개념적 편향이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행복은 좋은 삶의 필수적 ‘경험 층위’를 대표하되, 그것만으로 좋은 삶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행복의 지표는 ‘삶이 어떻게 체감되는가?’를 말해 주지만, ‘왜 그것이 좋은가?’를 말해 주지 못한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복을 의미(해석)와 덕(실천)의 층위와 연결해, 지표를 넘어서는 규범적 논의를 함께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 양경은, 「인간의 협력적 본성의 신뢰: 상호 의존과 지향성 공유 가설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4(2022), 77~118쪽.

20 김대근, 앞의 글, 266~298쪽.

III. 의미 담론

1. 의미의 이중 구조: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

국내·외 심리학 연구에서 삶의 의미는 단일한 정서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라는 이중 구조로 분석됐다. 의미 발견은 내 삶이 이미 이해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태에 가깝고, 의미 추구는 현재의 삶이 충분히 의미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미를 찾고 구성하려는 동기적 과정에 가깝다. 이 구분은 의미를 단순한 신념이나 낙관으로 축소하지 않고, 삶의 조건 변화에 따라 의미가 상태와 과정으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의미를 측정·구조화하기 위해 개발된 의미 척도는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를 구분하여 개념의 내부를 명료화했고, 이는 경험적 연구에서 ‘의미가 있다’와 ‘의미를 찾고 있다’가 서로 다른 심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게 했다.²¹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의미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단순한 결과 변수가 아니라 완충·조절 변수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임상·상담심리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안녕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삶의 의미성이 높으면 그 부정적 영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즉 의미는 단지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욕구 진술이 아니라, 스트레스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견디며 재조직하는가와 연결되는 심리

21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006), pp.80~93.

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²² 또한 의미를 구성하고 추구하는 과정은 희망이나 의미 발견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며, 의미를 정태적 소유물이 아니라 발달·전환의 과정으로 다루는 관점을 강화해 왔다.²³ 요컨대 의미 담론은 행복 담론이 제공하는 경험 지표를 보완하면서,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뿐 아니라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분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2. 의미 담론의 강점: “왜 사는가?”를 전면화

의미 담론의 핵심 기여는 행복 담론이 종종 주변화하는 규범적 질문, 예를 들면 가치, 목적, 책임을 다시 논의의 전면으로 복원한다는 데 있다. 행복 담론이 ‘즐거움이 큰가, 만족이 높은가?’를 묻는 경향이 있다면, 의미 담론은 ‘이 삶은 어떤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가?’를 묻는다. 이때 삶은 단순히 정서의 총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구성되는 서사적 구조이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향해 가며, 무엇을 감당하는가? 로 재정의된다.²⁴ 이러한 전환은 ‘좋은 삶’의 논의를 경험 지표의 증감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정당화 문제로 다시 연결한다.

해외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부분적으로 겹치면서도 핵심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제시되어, ‘좋은 삶’을 단일 지표로 환원하는 경향을 견제해 왔다. 예컨대 의미는 관계의 깊이, 기여,

22 백지영 · 서수균,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성의 조절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2014), 509~529쪽.

23 송현심 · 성승연, 「대학생과 중년 성인의 의미 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 의미 발견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017), 843~870쪽.

24 권선중 · 김교현 · 원두리,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005), 211~225쪽.

자기 초월, 가치 일관성 같은 요소와 더 강하게 결부될 수 있으며, 단
기적 쾌·불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평가하게 만든다.²⁵ 이는 “좋은 삶”의 준거가 ‘기분’이나 ‘만족’만으로 정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삶의 질 논의에 규범적 차원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 담론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역시 의미 연구가 참살이(well-being) 담론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전개됐음을 정리한다. 즉 의미 연구는 행복을 부정하거나 대체하기보다, 행복 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 즉 상실의 의미화, 고통의 해석, 책임의 수용, 가치의 선택을 다루면서 좋은 삶의 개념을 더 정교하게 확장한다.²⁶ 더 나아가 일의 의미와 같은 연구는 의미가 개인 내면의 관념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직·역할 수행이라는 사회적 장에서 형성·검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미가 개인 마음속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역할·규범이 교차하는 장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²⁷

3. 의미 담론의 한계: 사유화와 기준 불명확

그럼에도 의미 담론은 고유의 위험을 갖는다. 첫째, 의미가 개인 서사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의미 판단은 ‘나에게 의미 있다’라는 진술로 환원되기 쉽다. 이때 의미는 공적 검증, 즉 타인과의 숙의, 사회적 책임, 규범적 정당화와 느슨하게 연결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의미가 나의 진정성만으로 정당화되면, 그 의미가 타인에게 미치

25 Baumeister et al., *op.cit.*, pp.505~516.

26 박은선·박지아,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 연구 논총』, 29(2013), 267~299쪽.

27 서형준·탁진국·김혜선·남동엽·정희정·권누리·김소영·정일진, 「일의 의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2015), 437~456쪽.

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악화할 수 있다. 이는 ‘좋은 삶’ 논의가 필연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적 차원을 의미 담론이 충분히 붙들지 못하는 지점이다.

둘째, 의미 추구가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미 추구는 삶의 전환기에 적응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속적 탐색이 불안과 자기 불확실성을 확대하거나, 현재 삶에 대한 만성적 불만족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의미 측정 연구는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하며, 두 차원이 다른 심리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⁸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의미 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희망, 의미 발견 등 매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의미를 찾으면 행복해진다’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²⁹ 따라서 의미 담론은 의미 추구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규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의미 추구가 성장·적응으로 이어지고, 어떤 조건에서 불안·소진으로 전이되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셋째, 의미 담론은 규범 질문을 복원하지만, 동시에 그 규범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상대주의로 기울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의미는 덕(실천)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즉 의미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방향이 공적 삶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규범(책임, 타인 존중, 공동선 등)과 결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의미는 해석의 층위에서 강력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완결하려면 덕 윤리적 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

요컨대 의미 담론은 ‘왜 사는가?’를 전면화하여 좋은 삶의 서사·목적론을 복원하는데 탁월하지만, 동시에 사유화와 기준 불명확

28 Steger, et. al., *op.cit.*, pp.80~93.

29 Baumeister et al., *op.cit.*, pp.505~516.

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의미를 좋은 삶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려면,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의 이중 구조를 명료히 하고, 의미 추구의 조건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며, 의미의 정당화를 공적 검증과 실천 규범으로 연결하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IV. 덕담론

1. 덕 윤리의 현대적 재부상과 ‘좋은 삶’의 규범화

덕 윤리 담론은 ‘좋은 삶’을 무엇을 느끼는가?(행복) 혹은 ‘무엇을 해석하는가?’(의미)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성품)와 ‘어떻게 실천하는가?’(행위의 습관화)에 두는 전통을 계승한다. 이 관점에서 좋은 삶은 순간의 기분이나 삶의 만족 점수로 환원되기 어렵고, 삶의 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품성의 안정성, 실천의 지속성, 관계·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포함하는 규범적 과제로 설정된다. 국내에서 도덕 윤리를 ‘좋은 삶의 규범화’ 문제와 연결해, 덕 윤리의 역사적 전개를 검토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규범으로서 덕이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연구가 제시된다.³⁰ 즉 덕 윤리는 ‘좋은 삶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좋은 삶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형성할 것인가?’를 전면에 둔다.

이때 덕 윤리의 핵심은 좋음을 개인의 선호나 문화적 관습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복 담론이 경험 지표의 비교 가능성을 얻는 대신 규범 질문을 약화하기 쉽고, 의미 담론이 목적과 책임의 질

30 김대근, 앞의 글, 266~298쪽.

문을 복원하는 대신 사유화 위험을 갖는다면, 덕 윤리는 행위와 성품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통해 ‘좋은 삶’의 공적 언어를 복원하려 한다. 다만 이 복원이 성립하려면 덕이 단지 전통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다원사회에서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적 재부상’의 논점이다.

2. 에우다이모니아와 탁월성: 행복과의 구분

덕 윤리 전통에서 말하는 좋은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는³¹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주관적 만족이나 쾌락과 동일하지 않다. 에우다이모니아는 탁월성과 실천, 그리고 공동체적 맥락이 결합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기분이 좋다거나 만족한다는 경험은 좋은 삶의 한 요소일 수 있으나, 에우다이모니아는 그것을 넘어 ‘인간의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가?’, ‘삶이 합당한 이유에 의해 조직되는가?’를 묻는다. 이 관점은 행복을 ‘느낌의 총합’으로만 다루는 환원 경향을 견제한다.

이 구분은 심리학에서도 일정하게 확인된다. 행복과 에우다이모니아적 참삶을 구분하는 논의는, 즐거움과 만족이 높아도 삶이 공허하거나 목적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³² 특히 쾌락 추구하고 덕, 가치 지향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구분한 연구들은, 중

31 eudaimonia(εὐδαιμονία)는 고대 그리스 윤리학(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말하는 인간 삶의 궁극적 ‘잘-됨’(flourishing)을 뜻한다. 한국어로는 보통 행복, 인간적 번영, 잘 살, 참된 삶의 성취 등으로 옮기지만, 일상적 ‘기분 좋은 행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쾌락(hedonia)과 대비되는 것으로 쾌락·긍정 정서 중심의 hedonia와 달리, eudaimonia는 의미·덕·목적·탁월성 같은 규범적 요소를 포함한다.

32 Huta, V., & Ryan, R. M., “Pursuing pleasure or virtue: The differential and overlapping well-being benefits of hedonic and eudaimonic motiv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2010), pp.735~762.

은 삶을 단일 규모로 측정하려는 충동을 경계하게 만든다.³³ 또한 행복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실증 연구는, 덕 윤리가 강조하는 ‘옳음’과 ‘좋은’의 정당화가 단지 행복의 증가로 대체될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³⁴ 결국 덕담론이 제기하는 핵심은 ‘좋은 삶은 기분이 좋은 삶인가?’가 아니라, ‘좋은 삶은 인간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이다.

3. 덕담론의 실증적 확장: 성격 강점과 덕목

덕담론은 고전 철학의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학적 접근과도 접점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으로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 논의는 덕을 단지 당위적 설교가 아니라, 관찰·측정·개입의 대상으로 다룰 가능성을 열었다. 국내에서도 성격 강점과 덕목 틀이 도덕교육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면서, 덕 교육이 행복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³⁵ 이는 덕이 전통의 목록에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달·교육·프로그램 설계와 결합해 경험적으로 탐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접점은 덕을 ‘행복을 위한 도구’로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덕이 갖는 고유 기능 즉 지속 가능한 실천의 형성, 자기 통제와 관계 윤리, 공동체적 책임을 경험적 자료로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예컨대 자기 결정성 이론이 인간의 기본 욕구와 동기 질을 참살이(well-being)의 핵심 조건으로 설명하듯, 덕담론도 실천의

33 Waterman, A. S.,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1993), pp.678~691.

34 Baumeister et al., *op.cit.*, pp.505~516.

35 윤병오,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의 도덕 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33(2011), 155~182쪽.

동기, 공동체 맥락, 수행의 역량과 연결되면서 ‘덕이 왜 좋은가?’를 심리학적 언어로 보강할 수 있다.³⁶ 이런 점에서 덕담론의 실증적 확장은 단순 통계적 검증이 아니라, 덕의 규범적 논리를 삶의 조건·발달·교육과 연결하는 이론적 사고가 될 수 있다.

4. 덕담론의 한계: 덕 목록과 권위의 문제

그럼에도 덕담론은 두 가지 난점을 갖는다. 첫째, 덕 목록과 보편성의 문제다. 다원사회에서 특정 덕 목록을 ‘모두에게 타당한 규범’으로 제시하려면, 전통의 권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당화 논증이 필요하다. 어떤 덕이 왜 우선하는지, 덕들 사이가 충돌할 때 어떤 원리로 조정하는지, 덕이 개인의 신념 체계와 달라도 공적 합의가 가능한지 등이 명료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덕 윤리의 현대적 규범화 논의는 ‘역사적 전개’의 기술을 넘어, 현대 사회의 조건에서 설득할 수 있는 규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덕담론이 지나치게 규범적일 때 개인의 심리적 조건과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 즉 덕을 ‘되어야 한다’의 언어로만 제시하면, 실제 삶의 조건인 정서, 스트레스, 상실, 의미 체계 속에서 덕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의미는 스트레스와 안녕감 관계를 조절할 수 있고,³⁷ 행복 지표는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실천적 도구가 된다.³⁸ 덕담론이 이러한 경험적·해석학적 자원을 흡수하지 못하면, 덕은 이상적 구호로 남고 현실의 삶과 분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덕담론은 행복·의미 담론

36 Deci, E. L., & Ryan, R. M., *op. cit.*, pp.227~268.

37 백지영 · 서수균, 앞의 글, 509~529쪽.

38 이문희 · 이영순, 앞의 글, 813~831쪽.

을 ‘중속 변수’로 삼기보다, 덕의 형성과 실천이 작동하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행복(경험)과 의미(해석)의 층위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덕담론은 좋은 삶을 실천과 성품의 문제로 재배치함으로써 규범적 중심을 회복시키지만, 다원사회에서 덕의 보편성·정당화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조건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삶의 이론적 틀은 덕을 중심에 두되, 행복의 경험 지표와 의미의 해석 구조를 결합해 덕의 규범성을 삶의 조건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V. 좋은 삶 담론의 현대적 재정렬: 행복-의미-덕의 기능 문화적 상보성

1. 재정렬의 논리

본 연구에서 행복, 의미, 덕을 구분하여 논의한 것은 이들을 상호 무관한 독립 변인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이 경험, 해석, 실천이라는 상이한 분석 층위에서 좋은 삶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적 분화는 통합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 개념의 설명 기능과 한계를 선명히 한 뒤 상호 연동의 구조를 보다 엄밀하게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절차이다.

또한 ‘기능 문화적 상보성’이란 행복, 의미, 덕을 각각 경험, 해석, 실천의 기능을 담당하는 상이한 문화적 자원으로 보고, 어느 하나로 좋은 삶 전체를 환원하지 않은 채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재배

치하는 원리를 뜻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현대적 재정렬은 행복·의미·덕을 동일 층위의 경쟁 개념으로 병렬하지 않고, 각 개념이 담당하는 기능을 분화하여 상보적 구조로 재배치하는 데 핵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은 삶의 상태를 경험 수준에서 점검하는 지표, 의미는 삶의 방향을 해석 수준에서 부여하는 서사, 덕은 그 방향을 실천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성품으로 위치한다.³⁹ 이때 중요한 점은, 본 재정렬이 행복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행복은 좋은 삶 논의에서 가장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경험 자료로서, 개입·정책·교육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강점을 지닌다.⁴⁰ 다만 행복을 최종 기준으로 놓는 순간, 규범 질문, 즉 ‘왜 그것이 좋은가?’ 이 기술 질문이 무엇이 만족을 높이는가? 로 대체될 위험이 커지므로, 행복은 의미·덕의 구조 속에서 해석되는 경험 지표로 재위치되어야 한다.

이 재정렬은 경험연구의 성과를 이론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컨대 행복(정서·만족)의 변동은 사실상 인간의 욕구, 목표, 동기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동일한 결과라도 ‘왜?’ ‘무엇을 위해 추구했는지?’ 에 따라 참살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⁴¹ 그러므로 행복 지표는 삶의 결과를 알려주지만, 그 결과가 어떤 가치·책임·목적의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의 해석 장치를 요구한다. 이때 의미는 단순한 긍정적 신념이 아니라 삶의 사건을 목적론적·서사적으로 조직하여, 행복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준다.⁴² 동시에 덕은 그 해석이 공허한 선언으로 머물지 않도록, 반복할 수

39 Ryan, R. M., & Deci, E. L., *op. cit.*, pp.141~166.

40 구재선, 앞의 글, 305~323쪽.

41 Deci, E. L., & Ryan, R. M., *op.cit.*, pp.227~268.

42 Steger, et. al., *op.cit.*, pp.80~93.

있는 습관과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삶의 방향을 지속 가능한 양식으로 고정한다.⁴³ 요컨대 행복이 점점 장치라면, 의미는 방향을 부여하는 해석 틀이고, 덕은 그 방향을 현실의 행위로 번역하는 안정화 장치다.

2. 개념 간 긴장 해소: 세 가지 전형

재정렬의 필요성은 행복·의미·덕이 각각 단독으로 ‘좋은 삶’을 대표하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긴장에서 분명해진다.

첫째, 행복 중심 전형이다. 정책·교육·상담이 ‘만족도 상승’에 과잉 집중하면, 의미와 덕은 행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다뤄지기 쉽다. 이 경우 의미는 ‘행복을 높이는 심리기술’로 축소되고, 덕은 ‘긍정 정서를 촉진하는 습관 목록’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실증 결과는, 행복 지표를 최종 기준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설명 공백을 드러낸다.⁴⁴ 더 나아가 삶의 만족 척도 등 측정 도구가 제공하는 비교 가능성은 강점이지만, 그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떤 가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⁴⁵ 따라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경험적 정보 등’으로 읽혀야 한다.⁴⁶

둘째, 의미 중심 전형이다. 목적·소명·서사만을 강조하면, 정서적 소진이나 관계적 고립, 스트레스의 누적과 같은 현실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의미는 왜 사는가? 를 전면화하지만, 의미

43 김대근, 앞의 글, 266~298쪽.

44 Baumeister et al., *op.cit.*, pp.505~516.

45 구제선, 앞의 글, 305~323쪽.

46 윤병오,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33(2011), 155~182쪽.

추구가 항상 안녕감으로 귀결되는 그것은 아니며, 의미의 작동은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적 자원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주된다.⁴⁷ 특히 의미가 개인 서사에 과도하게 귀속되면 ‘나에게 의미 있다’라는 진술로 사유화되어 공적 검증과 책임의 차원을 느슨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⁴⁸ 따라서 의미는 해석의 중심축이되, 행복 지표(정서·만족)와의 연결을 통해 현실 적응의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셋째, 덕 중심 전형이다. 덕담론이 당위를 강하게 제시할 때, 개인의 심리적 조건(스트레스, 정서적 회복력, 의미 경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덕은 좋은 삶을 성품과 실천의 문제로 재배치하여 규범적 중심을 회복하지만, 덕의 실천 가능성은 개인의 동기 구조와 관계 환경, 소진 상태 등과 분리될 수 없다. 또한 다원사회에서 특정 덕 목록을 보편 규범으로 제시하려면 정당화 논증이 필요하고, 전통의 권위만으로는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덕이 ‘실행할 수 있는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제공하는 해석 틀 즉, 왜 이것이 가치 있는가와 행복 지표가 제공하는 경험 점검, 즉,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함께 끌어와야 한다.

이상의 긴장을 종합하면, 좋은 삶은 다음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행복 지표의 변동을 의미 틀에서 해석하고, 둘째, 덕 실천을 통해 의미를 안정화하며, 셋째, 그 과정에서 행복이 ‘부수 효과’가 아니라 경험적 점검 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행복은 ‘목표치’가 아니라 ‘상태 신호’이며, 의미는 ‘방향 설정’이고, 덕은 ‘지속 가능한 실행’이다. 이 기능 분화가 확보될 때, ‘좋은 삶’은 측정 가능성과 규범 정당화 사이의 오래된 긴장을 생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7 백지영·서수균, 앞의 글, 509~529쪽.

48 박은선·박지아, 앞의 글, 267~299쪽.

3. 비교 요약: 개념 매트릭스의 해석

본 연구의 매트릭스는 질적 자료의 개방코딩을 통해 범주를 귀납적으로 생성한 결과가 아니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개념별 특징을 연구자가 설정한 비교 축에 따라 연역적으로 재구성한 이론적 분석 도식이다.

행복·의미·덕의 상보적 관계를 규범 근거, 측정 가능성, 실천 전략의 세 차원에서 비교하고, 이를 경험-해석-실천의 기능 분화로 재정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좋은 삶’ 담론에서 행복-의미-덕 개념의 상보성 매트릭스

구분	행복(Happiness)	의미(Meaning)	덕(Virtue)
규범 근거 (정당화 강도)	악함: ‘좋다/나쁘다’의 체감 데이터(경험 신호)를 제공하나, 그것이 왜 좋은 삶인지의 정당화 근거로는 제한적임	중간: 가치·목적을 호출하여 규범 질문을 복원하나, 사유화 위험과 기준 불명확의 문제가 남음	강함: 행위·성품의 규범을 제시하여 강한 정당화 자원을 갖지만, 다원사회에서 규범의 정당화(권위) 문제를 별도로 해결해야 함
측정 가능성	높음: 삶의 만족·정서 등 지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동일성 검증 등으로 비교 타당성 강화 가능	중간: 척도를 통해 ‘의미 발견/의미 추구’로 측정할 수 있으나, 해석이 맥락 의존적이고 경험적 결과와의 연결이 복합적임	낮음/간접: 직접 측정보다 행동·습관·관계 속 실천의 간접 지표로 포착되는 경향이 강해 측정 난도가 높음
실천 전략 (개입 방식)	정서 조절, 관계 개선, 만족 증진 등 프로그램·상담·교육 개입으로 설계되기 쉽고 효과 검증에도 유리함	서사·목표 재구성 및 삶의 해석 틀 전환을 통해 작동하며, 스트레스-안녕감 관계에서 완충 자원으로 기능 가능	습관 형성, 공동체적 실천, 역할 수행의 규범화 등을 통해 삶의 방향을 안정화함

구분	행복(Happiness)	의미(Meaning)	덕(Virtue)
담론 기능 (경험-해석-실천)	경험 수준의 점검 장치 (상태 신호/지표)	해석 수준의 방향·서사 장치(가치·목적 부여)	실천 수준의 규범 장치 (성품·행위 양식 안정화)
재정렬의 핵심 이동 (본 논문의 기여)	최종 기준에서 경험 점 검 장치로 위치 이동	사유화 위험을 통제하 는 방향·서사 장치로 정교화	다원사회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실천 규범으로 재구성

〈표 1〉은 ‘좋은 삶’ 담론을 구성하는 행복·의미·덕을 상호 경쟁하는 기준으로 배열하기보다, 각 개념이 강점을 발휘하는 영역과 취약성이 드러나는 지점을 구분하여 상보적 설계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비교 틀이다. 즉, 행복·의미·덕은 동일 차원에서 단일 기준으로 우열을 가르는 대상이 아니라, 규범적 정당화, 경험적 측정, 실천적 개입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 분화가 ‘좋은 삶’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과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을 표는 요약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 근거(정당화의 강도) 차원에서 행복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인다. 행복 지표는 삶의 상태를 “좋다/나쁘다”로 체감·보고하게 하는 경험적 신호를 제공하지만, 그 신호 자체가 왜 ‘좋은 삶’의 정당한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어렵다. 반대로 의미는 가치와 목적을 호출함으로써 행복 담론이 종종 주변화하는 규범적 질문을 다시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정당화 자원을 강화한다. 다만 의미가 개인의 서사와 선택에 깊이 연동되는 만큼, 공적 기준이 희미해지거나 사유화되는 위험(자자 좋다고 여기는 바가 곧 ‘좋은 삶’이 되는 방식)이 남는다. 덕은 행위와 성품의 규범을 통해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강한 정당화 자원을 제공하지만, 다원사회에서 특정 덕 규범이 어떤 권위와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요컨대 정당화의 강도는 행복 < 의미 < 덕의 방향성을 보이되, 단계마다 상응하는 한계가 있다. 행복의 정당화 결핍, 의미의 기준 불명확, 덕의 다원사회 정당화가 구조적으로 동반된다.

둘째, 측정 가능성 차원에서 행복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계량화 가능성을 갖는다. 삶의 만족, 긍정·부정 정서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측정 도구를 통해 측정될 수 있고, 측정 동일성 검증과 같은 방법론적 절차를 통해 집단 간 비교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의미 역시 ‘의미의 발견’과 ‘의미의 추구’와 같은 척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의미 경험은 맥락 의존성이 크고, 동일 점수라도 삶의 조건·서사·가치 지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험적 결과 변수들과의 관계도 복잡적이다. 덕은 특히 직접 측정의 난도가 높다. 덕은 자기 보고식 태도나 성향으로 환원되기보다 행동·습관·관계 속 실천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므로, 관찰·평정·맥락 자료 등 간접 지표를 종합해야 하며, 그만큼 측정의 비용과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 점에서 표는 측정 가능성이 행복 > 의미 > 덕으로 정리됨을 보여준다.

셋째, 실천 전략(개입 방식) 차원에서 행복은 프로그램·상담·교육 개입으로 설계하기 쉽고, 효과 검증에도 비교적 유리한 영역을 형성한다. 정서 조절, 관계 개선, 만족 증진 등은 개입 목표를 구체화하기 쉽고, 사전-사후 설계나 비교 집단을 통한 효과 평가도 가능하다. 의미는 서사·목표의 재구성과 해석 틀 전환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증상 완화보다 삶의 방향성 재정렬과 관련된 개입을 요청하며,⁴⁹ 스트레스-안녕감 관계에서 완충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덕

49 노성숙, 「톨스토이는 삶의 무의미로부터 어떻게 의미탐색을 해 나갔는가?: 『참회록』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철학적 숙고’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55(2025), 75~112쪽.

은 습관 형성, 공동체적 실천, 역할 수행의 규범화 등 장기적이고 관계적인 실천 체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안정화한다. 따라서 개입의 논리는 행복이 ‘상태 개선’, 의미가 ‘해석·방향 재구성’, 덕이 ‘실천의 안정화’에 각각 친화적이며, 이 차이가 세 개념을 동일한 개입 설계로 환원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표 1>은 행복-의미-덕을 경험-해석-실천의 기능 분화로 재배치한다. 행복은 ‘좋은 삶’의 최종 기준이라기보다 삶의 상태를 점검하는 경험적 지표로 위치가 조정되고, 의미는 가치·목적을 통해 방향과 서사를 부여하되 사유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정교화된다. 덕은 삶의 방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실천 규범으로서 핵심성을 갖지만, 다원사회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화 조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표 1>의 요지는 세 개념을 하나의 척도에 올려놓고 통합하려는 시도보다, 각 개념의 강점이 작동하는 층위와 취약성이 발생하는 지점을 분명히 한 뒤, 이를 연결하는 통합 설계를 구축할 때 ‘좋은 삶’ 담론이 이론적으로도 일관되고 실천적으로도 적용 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VI. 결론

■ 본 연구는 ‘좋은 삶’ 담론이 규범 철학의 정당화 질문과 심리·사회과학의 경험적 측정 질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두 질문의 층위 차이가 실천적 압력 속에서 충분히 분리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을 주관적 안녕의 경험 지표, 의미를 삶의 목적·서사를 조직하는 해석 틀, 덕을 성품과 습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안정화하는 실천 규범으로 구분해

비교하고, 세 개념을 동일 수준의 경쟁 기준이 아니라 ‘행복(경험)-의미(해석)-덕(실천)’의 기능 문화적 상보성으로 재정렬하는 이론 틀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 담론은 삶의 만족과 정서를 비교할 수 있게 측정·평가하는 강점을 가지지만, 욕망 충족·비교·적응의 순환 속에서 개념 경계가 확장될수록 ‘ 좋음’의 정당화가 상관·효과의 언어로 환원될 위험이 확인되었다. 의미 담론은 ‘왜 사는가?’의 질문을 복원하고 의미 발견과 의미 추구의 이중 구조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정교화하지만, 의미가 개인 서사에 과도하게 귀속될 때 공적 기준이 희미해지고 기준 불명확의 문제가 남는다.

덕담론은 좋은 삶의 규범적 중심을 회복시키는 강한 정당화 자원을 제공하나, 다원사회에서 덕의 보편성·정당화(권위)와 개인의 심리적 조건과의 접속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이러한 비교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규범 근거, 측정 가능성, 실천 전략’의 세 차원에서 행복·의미·덕의 강점과 취약성을 분리해 제시하고, 각 차원에서 발생하는 편향(행복의 지표 최적화, 의미의 사유화, 덕의 권위 고착)을 상호 제약·보완 관계로 조정하는 재정렬 원리를 도출하였다. 즉 행복은 최종 기준이 아니라 삶의 상태를 점검하는 신호로 재위치되고, 의미는 가치·목적 을 호출하되 사유화 위험을 통제하는 방향·서사 장치로 정교화되며, 덕은 그 방향을 지속 가능한 행위 양식으로 번역하는 실천 규범으로 자리한다.

이 틀은 좋은 삶을 단일 지표의 총합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경험 자료(행복)를 해석(의미)과 실천(덕)에 연동시켜 정책·교육·상담 등 적용 장면에서 목표 설정(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과정 지원(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효과 점검(무엇이 실제로 변했는가?)을 구분하면서 연결하는 설계 원리를 제공한다. 특히 ‘불편하지만 정당한 선택’이나

‘당장은 행복이 낮아도 의미와 덕의 관점에서 옳을 수 있는 삶’처럼 경험 지표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론 비교에 근거한 개념적 재배치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제안된 상보성 구조가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 어떤 지표·과정·실천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후속 검증이 요구된다.

- 김대근, 「덕 윤리의 역사적 전개와 규범화: 좋은 삶의 규범화 가능성을 위한 시론」, 『법철학 연구』, 28(2025), 266~298쪽.
- 권석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36(2010), 121~152쪽.
- 권선중·김교현·원두리,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005), 211~225쪽.
- 구제선,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연령 및 성별 측정 동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2019), 305~323쪽.
- 김혜원·한영석·차경호·김명수·임지영,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 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003), 415~442쪽.
- 노성숙, 「톨스토이는 삶의 무의미로부터 어떻게 의미탐색을 해 나갔는가?: 『참회록』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철학적 숙고’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55(2025), 75~112쪽.
- 백지영·서수균,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성의 조절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2014), 509~529쪽.
- 박은선·박지아,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 연구 논총』, 29(2013), 267~299쪽.
- 서형준·탁진국·김혜선·남동엽·정희정·권누리·김소영·정일진, 「일의 의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2015), 437~456쪽.
- 송현심·성승연, 「대학생과 청년 성인의 의미 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 의미 발견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017), 843~870쪽.

양경은, 「인간의 협력적 본성의 신뢰: 상호 의존과 지향성 공유 가설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4(2022), 77~118쪽.

이문희·이영순, 「성격 강점에 기반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의 주관적 안녕감, 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013), 813~831쪽.

유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쾌락과 고통의 의미와 역할」, 『동서 철학 연구』, 0(2021), 205~227쪽.

윤병오,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의 도덕 교육적 함의」, 『도덕 윤리 과 교육』, 33(2011), 155~182쪽.

정소라,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과 민주주의」, 『인간연구』, 56(2025), 151~183쪽.

천명주·심정옥, 「작은 행복 추구 경향성과 사회적 연대 의식 간의 관계: 주관적 행복과 정치참여 의도의 매개 효과」, 『한국과 세계』, 7(2025), 945~968쪽.

Baumeister, R. F., Vohs, K. D., Aaker, J. L., & Garbinsky, E. N.,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a happy life and a meaningful lif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2013), pp.505~516.

Deci, E. L., & Ryan, R. M.,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2000), pp.227~268.

Huta, V., & Ryan, R. M., “Pursuing pleasure or virtue: The differential and overlapping well-being benefits of hedonic and eudaimonic motiv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2010), pp.735~762.

Keyes, C. L. M.,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2002), pp.1007~1022.

Ryan, R. M., &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2001), pp.141~166.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989), pp.1069~1081.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006), pp.80~93.

Waterman, A. S.,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1993), pp.678~691.



■ 본 연구는 ‘좋은 삶’ 담론이 행복, 의미, 덕이라는 세 갈래로 분기·확장되는 과정에서 동일 층위의 경쟁 기준으로 병치되며 발생하는 이론적 혼선과 실천적 편향을 점검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현대적 재정렬 틀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복은 비교할 수 있는 경험 지표를 제공하나 ‘좋은 삶’의 정당화가 지표 최적화로 축소될 위험이 크고, 의미는 규범 질문을 복원하지만 개인 서사로 과도하게 귀속될 때 공적 기준이 약화하며, 덕은 가장 강한 규범 자원을 제공하나 권위와 정당화의 문제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규범 근거, 측정 가능성, 실천 전략의 세 차원에서 세 개념의 강점·한계를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행복(경험)-의미(해석)-덕(실천)의 기능 분화적 상보성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재정렬은 ‘측정 가능성’과 ‘규범 정당화’ 사이의 긴장을 생산적으로 조정하면서, 교육·상담·정책 장면에서 목표 설정(의미), 과정의 지속(덕), 결과 점검(행복)을 연결하는 통합 설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좋은 삶, 행복, 삶의 의미, 덕 윤리, 주관적 안녕감, 에우다이모니아, 규범 정당화



A Contemporary Reordering of the Discourse on the Good Life: A Theoretical Comparison of the Concepts of Happiness, Meaning, and Virtue

Yoon, Ok Han

(Kookmin University, Education, Professor)

■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confusion and practical biases that arise when discourses on the “good life” diverge into three strands — happiness, meaning, and virtue — yet are juxtaposed as competing criteria at the same analytical level. It proposes a contemporary framework for reordering these concepts. Happiness provides comparable experiential indicators, but it carries a substantial risk that the justification of “the good” will be reduced to the optimization of such indicators. Meaning restores normative questions, but when excessively confined to personal narratives, it may weaken public standards. Virtue offers the strongest normative resources, yet issues of authority and justification remain unresolved. Accordingly, this study organiz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three concepts into a matrix across three dimensions — normative grounds, measurability, and practical

strategy — and proposes their repositioning as a functionally differentiated complementarity of happiness (experience), meaning (interpretation), and virtue (practice). This reordering productively mediates the tension between measurability and normative justification and provides a logical basis for an integrated design that links goal setting (meaning), sustaining processes (virtue), and outcome monitoring (happiness) in educational, counseling, and policy contexts.

Keywords: Good Life, Happiness, Meaning in Life, Virtue Ethics, Subjective Well-Being, Eudaimonia, Normative Justification

- ◎ 투고 접수 2026. 02. 10.
- ◎ 심사 완료 2026. 04. 20.
- ◎ 게재 결정 2026. 04. 27.